갑진년 새해 청룡타고 도약하는 스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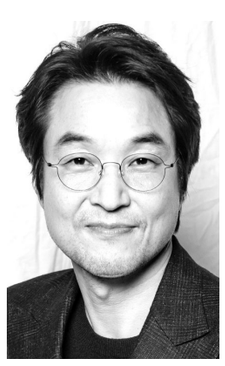
남진 데뷔 60주년·김연자 50주년 봉준호 감독·방시혁 의장 30주년

'용띠' 한석규, 새 드라마 촬영 돌입 '용띠클럽' 차태현·김종국·장혁 등 예능·드라마·뮤지컬 활동 등 주목

남진

김연자

봉준호


한석규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을 앞두고 새해가 보다 특별하게 다가오는 연예계 스타들이 있다.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수 남진은 데뷔 60주년 금자탑을 쌓게 됐다.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의 위상을 올린 봉준호 감독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발굴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도 각각 활동 30년을 맞는다.

◇ 남진 데뷔 60주년…김연자 50주년·박진영 30주년

영원한 오빠' 가수 남진은 2024년에 뜻깊은 데뷔 60주년을 맞는다.

그는 1963년 한 음악 레스토랑 가수로 활동하며 처음 가수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1964년 가요계에 정식 데뷔해 이후 '님과 함께', '둥지', '빈 잔' 등의 히트곡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945년생으로 새해 79세가 되는 그는 여전히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과 콘서트 무대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남진은 올해 9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수는 '활동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내게 딱 맞는 곡을 만나면 그날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다.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러야만 행복하고 즐겁다. 무대를 떠날 때까지 '오빠'라는 말과 환호 소리를 듣고 싶다"며 열정을 숨기지 않았다.

1980~90년대 일본에서 '엔카의 여왕'으로 불린 뒤 2010년대 '아모르 파티'의 히트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인기를 누린 김연자는 내년이면 데뷔 50주년이 된다.

김연자는 1974년 15세에 '말해줘요'로 데뷔해 1987년 일본에 진출, '원조 한류스타'로 활약했다.

'영원한 딴따라' 박진영과 싱어송라이터 유희열은 나란히 데뷔 30주년을 맞는다.

이들은 같은 해 '날 떠나지 마'(박진영)와 '내 마음 속에'(유희열)로 각각 정식 데뷔해 30년 간 숱한 히트곡을 배출했다. 박진영과 유희열은 각각 JYP와 안테나를 이끄는 대표 프로듀서로도 활동 중이다.

이 밖에 '1세대 국민 아이돌' 지오디는 데뷔 25주년을 앞뒀고, 윤하·다이나믹 듀오·이승기는 각각 가수 인생 스무 살을 내다보고 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도 곧 음악 활동 30년을 맞는다.

방 의장은 지난 1994년 제6회 유재하음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방 의장은 방탄소년단을 발굴해 월드스타로 띄우고, 중소 기획사였던 하이브(당시 빅히트)를 시가총액 10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1위 초대형 가요 기획사로 성장시켰다.

◇ 데뷔 30주년 된 봉준호 감독…회갑 맞이한 한석규

'기생충'의 성공으로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린 봉준호 감독은 새해 데뷔 30주년을 맞는다.

1994년 단편 영화 '백색인' 연출로 영화계에 발을 내딛은 봉 감독은 '괴물'(2006), '마더'(2009), '설국열차'(2013), '옥자'(2017) 등 작품성과 흥행력을 두루 갖춘 작품으로 충무로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19년에는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이 영화는 한국 작품으로는 최초로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상, 감독상 등 4관왕에 올랐다.

그는 내년 3월 말 5년 만의 신작이자 여덟번째 장편 영화 '미키 17'로 돌아온다. 에드워드 애슈턴의 소설 '미키 7'을 원작으로 한 SF 장르 영화다. 할리우드 톱스타인 로버트 패틴슨과 '미나리'(2021) 주연 배우 스티븐 연 등이 출연하고 워너브러더스가 제작에 참여한다.

용의 해를 맞이한 만큼 용띠 배우들의 활동도 기대를 모은다.

한석규는 계묘년인 1964년에 태어나 새해 회갑(回甲)을 맞이한다. 1990년 KBS 성우, 이듬해 MBC 공채 탤런트로 연기 경력을 시작한 한석규는 1990년대 TV와 영화를 넘나들며 무수한 작품의 흥행을 이끌어 '흥행 보증수표'로 통했다.

그는 자신이 타이틀 롤을 맡은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으로 최고 16.8%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새해에도 하반기에 첫 방송할 드라마의 촬영을 앞두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연예계에서 오래된 우정으로 유명한 이른바 '용띠클럽' 멤버들도 용의 해에 어떤 활동을 할지 주목된다.

배우 장혁, 차태현, 홍경인, 가수 김종국, 홍경민 등 1976년 용의 해 출생 연예인들은 공개적으로 친분을 드러내며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해왔다. 2017년 KBS '용띠클럽: 철부지 브로망스', 올해 JTBC '택배는 몽골몽골' 등이 대표적이다.

/연합뉴스

'고려거란전쟁' 최수종, KBS 연기대상 품었다

4번째 유동근과 최다 타이

KBS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강감찬을 연기한 최수종〈사진〉이 연기대상을 거머쥐었다.

KBS는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진행된 '2023 연기대상'에서 최수종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이로써 최수종은 1998년 '야망의 전설', 2001년 '태조 왕건', 2007년 '대조영'에 이어 네 번째로 대상을 받았다. 이는 유동근과 함께 최다 수상 타이기록이다.

여러 대하사극의 흥행을 이끌었던 최수종은 작년 11월부터 방송 중인 '고려거란전쟁'에서 거란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강감찬을 연기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최고 10%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최수종은 이날 수상 소감에서 먼저 시상자로 나선 임동진을 향해 "임동진 선생님은 제가 따라가고 싶은 배우"라며 존경심을 드러냈다. 임동진은 1987년 1회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최수종은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며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나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간에도 하늘을 보며 기도하고 있을 (배우자) 하희라 씨와 누나, 매형,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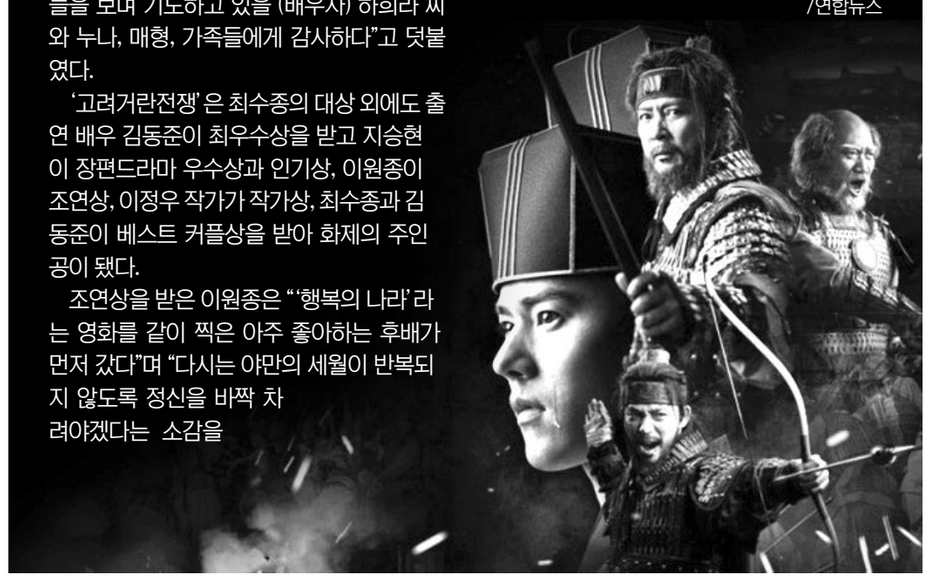
'고려거란전쟁'은 최수종의 대상 외에도 출연 배우 김동준이 최우수상을 받고 지승현이 장편드라마 우수상과 인기상, 이원종이 조연상, 이정우 작가가 작가상, 최수종과 김동준이 베스트 커플상을 받아 화제의 주인공이 됐다.

조연상을 받은 이원종은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를 같이 찍은 아주 좋아하는 후배가 먼저 갔다"며 "다시는 야만의 세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소감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직 개봉되지 않은 영화 '행복의 나라'는 최근 별세한 이선균이 주연이다.

남자 최우수상은 김동준과 '혼례대첩'의 로운에게 돌아갔고, 여자 최우수상은 '효심이네 각자도생'의 유이에게 수여됐다.

'혼례대첩'은 로운이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조이현이 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고, '효심이네 각자도생' 역시 유이가 최우수상과 인기상, 하준이 우수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우아한 제국(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세상의 아침밥	45 뽀뽀뽀 좋아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동행(재) 55 도시의 기록(재)	0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15 헬로키즈 체육교실(재) 30 주니토니이야기 4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이 맛에 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집 금송아지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꿀잼 영화가 좋다 베스트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3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뉴스브리핑
3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5 시간여행자 루크(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어린이 동물티비(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00 한국인의 밥상(재)	10 트로트 클라쓰 3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50 우아한 제국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더 시즌즈 베스트 55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PD수첩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0	00 2024 신년 경제 기획 3부작 다른 미래	10 월화드라마 환상연가	00 솔로동창회 학연	20 강심장VS
11	30 KBS 뉴스 40 영상앨범 산(재)	30 아이 러브 스포츠 55 살림하는 남자들(재)	30 100분토론	50 열린예술무대 뒤란
12	10 KBS네트워크특선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		55 TV예술무대	5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미스테리아
07:15 빅 블루
07:30 출동! 슈퍼윙스
07:45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한글용사 아이야
08:35 뽀롱뽀롱 뽀로로
08:50 샤샤 앤 마일로
09:20 인간과 바다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귀하신 몸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15:15 강신주의 장자 수업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페파 피그
17:10 오구오구 내 새끼
17:2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17:25 미스테리아
17:40 그린조끼 구조대
17:55 한글용사 아이야(재)
18:1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8:40 EBS 뉴스
19:00 한국의 둘레길
19:20 고향민국
19:50 극한직업
20:40 세계테마기행
〈신장웨이우얼, 서역으로 가다 -톈산산맥의 보물, 투루판〉
21:35 한국기행
〈새해엔 바라는 대로 2부 바퀴 달린 콘서트〉
21:55 EBS 다큐프라임
22:50 건축탐구 - 집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일(음 11월 21일 乙丑)

☎ 010-9790-8237

子 36년생 숙의하는 과정에서 길한 결론에 이르리라. 48년생 방심하고 있다면 어려운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 60년생 참으로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니라. 72년생 서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철저하게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84년생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낫다. 96년생 표준과 전형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겠다. 행운의 숫자 : 40, 61

丑 37년생 지금 상당한 쓰라림이 있다 하더라도 감내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49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61년생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큰 효과를 본다. 73년생 여태까지 공들여 왔던 것이 사라질 수 있다. 85년생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의 요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97년생 기운차게 붙잡아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16, 86

寅 38년생 급격한 변수가 보이니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50년생 사소하다고 여겨왔던 것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 62년생 잡다한 번거로움을 차치하고 추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74년생 가까스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86년생 진실은 진심으로만 통한다는 사실을 알라. 98년생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92

卯 39년생 무리하지 않는 것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된다. 51년생 오랫동안 진행될 것이니 장기적으로 대비해야겠다. 63년생 포용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리가 없으리라. 75년생 힘든 와중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쳐온다. 87년생 희구한다면 용기를 갖고 임해야 한다. 99년생 강도와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형세이다. 행운의 숫자 : 28, 60

辰 40년생 분수와 격에 맞아야 순조로울 것이다. 52년생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다. 64년생 본바탕의 한계 때문에 회의를 느낄 수다. 76년생 관련시키지 말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88년생 상호 간에 유기적이며 원만한 소통이 필요한 때이니라. 00년생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취약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7, 69

巳 41년생 단순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생경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느니라. 53년생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는 여지는 충분하니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방심해서도 아니 된다. 65년생 수효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한다. 77년생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89년생 대고는 없으나 공허할 뿐이다. 01년생 상호적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17, 91

午 42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 54년생 소금 팔러 나가려니까 비가 내리는 이치이다. 66년생 적절한 시기에 정확히 실행해야 작용력이 크다. 78년생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90년생 갈급하고 있는 바는 보이지 않고 간접적인 것만 눈에 띈다. 02년생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해 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1, 89

未 43년생 불타오르는 기세이므로 잘 살펴봐야겠다. 55년생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면모를 띠고 있다. 67년생 소폭적이나마 발전적인 이동수가 보인다. 79년생 군사에 있어서는 간사한 꾀를 꺼리지 않는 법이다. 91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며, 갈구해 왔던 바를 이룬다. 03년생 불편하기는 하나 흉사는 없고 평길할뿐이다. 행운의 숫자 : 04, 94

申 44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결단은 바람직하다. 56년생 대로를 걷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이니라. 68년생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80년생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긴다. 92년생 새로운 것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04년생 흉과 복이 반반이니 의연히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24, 84

酉 45년생 크기로 보지 말고 밀도를 살펴야 할 것이니라. 57년생 대체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면서 실속이 있다. 69년생 마음먹고 있던 일을 처리하기에 적합하다. 81년생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불합리하다. 93년생 핵심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다루자. 05년생 사필귀정하는 법이니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5, 58

戌 46년생 상대가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 주어야만 효과적이다. 58년생 핵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전면에 나서는 형상이다. 70년생 여파가 상당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나서자. 82년생 중차대한 일이니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 94년생 조만간에 곧 결정이 날 것임에 틀림없다. 06년생 성공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다. 행운의 숫자 : 00, 76

亥 35년생 진정한 마음의 전달이 전환점을 마련한다. 47년생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것이다. 59년생 자기 모순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리라. 71년생 유명무실한 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83년생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 95년생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29, 77